

2013. 5. 19
웨슬리회심기념주일
공동설교문
으로 설교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4~8 / 작성_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공동설교집 다운로드
Hardie1903.com

웨슬리기념성회에서는
Hardie 1903 성령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Hardie 1903 성령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디1903성령한국> 준비위원회

5월 19일(주일) 웨슬리 회심주일 설교문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8절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만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행 2장 46-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 인은 구원의 확신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심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19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영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영국 사회도 구원을 받았습시다. 한국교회도 선교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하게 된 것도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부흥이 1907년 평양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꼭 11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산에 부흥을 주실 때, 쓰셨던 이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이 다 훌륭하시지만 의사였던 하디 선교사는 대단히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원산에서 선교하시던 하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나마 뜻이 좋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한국 교인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 ‘분명하고, 지속적인 회개의 구체적인 예’를 보지 못하여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 여름,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모여 한 주간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가졌는데, 하디 선교사가 3번 말씀을 전하게 되어 말씀을 준비하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전도의 결실이 없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자신의 학력과 의사라는 직업, 영국시민이라는 교만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하디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선교의 결실이 없었던 원인이 자신의 ‘교만과 강박함,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공개적으로 통회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들도 역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디선교사는 한국 교인들 앞에서도 낱알이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디를 통해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은 후 하디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은 은혜를 받기 전 하디와 은혜를 받은 후 하디가 180도로 달라졌으며, 은혜를 받은 후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던 모세의 얼굴과 같았고,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 하디는 평범한 의사, 아니 환자들이 기피하는 썩썩맞은 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 하디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며 병이 들어도 하디에게 치료를 받기를 주저했던 환자들은 하디가 은혜를 받은 후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하디의 성품과 인격과 삶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디는 한국 교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는 회개에 대해

서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회개의 설교와 더불어 회개의 실례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디는 자신의 회개로 “사람들은 처음으로 죄의 자각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가운데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흥은 “강력한 죄의 회개로 특징지어졌습니다. “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계에 한국식(Korean style) 기도로 알려진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성향을 띠던 영적 각성이 1905년 들어서면서, 집단적인 성향을 띠면서 교회 갱신으로 이어졌습니다.

1906년 8월에 평양에서 선교사들의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이 있었는데 강사로 초청된 하디는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는지, 그런 자신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변화시켜주셨는지를 진솔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날 하디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 슬프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 말씀에 마음이 열린 선교사들은 이 때 부터 1907년 연초에 모일 겨울사경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1907년 평양대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와 특히 감리교회 위에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개 교회의 문제, 감리교회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는 열흘 동안이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선교사 수양회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여 선교사 화이트(Mary Culler White)와 맥컬리(Louise Hoard McCully)가 주도하였었는데, 그들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디선교사가 선교사 수양회에서 설교하던 그 때, 하디선교사를 파송하였던 캐나다 토론토지역 YMCA에서는 저녁

기도회가 열려 한국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